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지침서

현장 제1장 정의

가톨릭학교는 가톨릭 교회가 설립 또는 인가한 학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기초한다.

1. 정의

가톨릭학교는 가톨릭 교회가 설립 또는 인가한 학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기초한다.¹⁾ 가톨릭 학교는 교회 관할권자의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인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는 교육 원리²⁾를 학교 교육 이념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2. 일반적 특성

가톨릭학교는 학교의 고유한 특성인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지적 능력을 계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과 문화적 유산의 전달과 함께 그 안에 담긴 가치관과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가톨릭학교는 정치·경제·문화·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에 헌신하는 모든 다른 교육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³⁾

3. 교회적 특성

가톨릭학교는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화와 그리스도교 교육이 실현되는 장소이므로 교회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교육 기관인 가톨릭학교는 내적으로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 교회의 합법적 권위와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외적으로는 가톨릭의 분위기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⁴⁾

4. 학교 유형

가톨릭학교는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고, 대한민국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 교육 기관(전문 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특수 학교, 각종 학교, 대안 학교 등을 포함한다. 단, 가톨릭 교육 기관 중 유치원과 고등 교육 기관은 본 지침서 외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⁵⁾

현장 제2장 사명

가톨릭학교는 복음화와 전인 교육을 사명으로 한다.

1. 복음화 사명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진리 탐구와 신앙을 통합하여 복음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복음화 사명을 지닌다. 가톨릭학교가 복음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교육자가 우선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⁶⁾ 이를 위하여 가톨릭학교는 학교 정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지침서」(이하 지침서), 2011년 승인, 1.1.1: 『교회 법전』, 803조.

2) 본 지침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는 교육 원리를 제4장 교육 과정, 제5장 교육 방법에서 한국의 교육 제도와 가톨릭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참조: 지침서 1.1.3: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1997, 27.29.30항;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1997, 16항.

4) 지침서 1.1.4 참조: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11.12항;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34항 참조.

5) 지침서 1.1.2 참조.

6) 지침서 1.2.2-3) 참조: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49항; 참조: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책, 의사 결정, 교육 과정, 그리고 시설과 구조물 배치 등에서 복음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⁷⁾

2. 전인 교육 사명

가톨릭학교의 전인 교육 사명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든 인간이 민족, 신분, 나이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존엄한 인격체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가톨릭학교의 전인 교육은 종교 교육, 공동체 의식과 윤리 의식의 형성, 직업 생활의 준비 등 학생들의 모든 인간적 기능들을 계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 입시와 취업을 위한 효율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그 가치, 평화로운 삶의 영위, 참된 자유와 올바른 선택,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위한 인격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⁸⁾

3. 복음화와 전인 교육을 위한 종교 교육

가톨릭학교의 복음화와 전인 교육 사명은 수준 높은 종교 교육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가톨릭학교는 종교 교육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가치를 전수함으로써 복음화 사명을 수행한다. 또 종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종교적 관용과 존중, 영성적 풍요로움, 도덕적 감각을 키워줌으로써 전인 교육을 구현한다.⁹⁾

현장 제3장 공동체성

가톨릭학교는 본질적으로 복음 정신에 따른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이다.

1.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

가톨릭학교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원형으로 하는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는 가톨릭학교 교육의 출발이자 내적 구조이며, 가톨릭학교가 실현해야 할 교육적 이상이다.¹⁰⁾ 가톨릭학교는 복음에 입각한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가운데 형제애와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2. 자유의 교육 공동체

가톨릭학교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자유의 교육 공동체이다. 자유는 각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기 양심에 따른 선택과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수반한다. 가톨릭학교는 각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 안에서 학교 구성원의 독창성, 창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¹¹⁾

3. 사랑의 교육 공동체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교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교육 공동체이다. 사랑은 복음화의 기초이자 완성이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내적 기쁨의 원천이며, 공동선을 위한 생명, 정의,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

8.11.19항: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7.8.9항: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1982, 22.42.56항.

7) 지침서 1.2.2-2) 참조.

8) 참조: 지침서 1.2.1;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1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서 있는 가톨릭학교」, 10.19항;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56항.

9) 지침서 1.2.1-4) 참조.

10) 참조: 지침서 1.2.2-2);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8항.

11) 참조: 지침서 1.2.2-2);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8.55항.

력이다.¹²⁾ 가톨릭학교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장 제4장 교육 과정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교 인간관을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1. 교육 과정의 기반

가톨릭학교 교육 과정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그리스도교 인간론을 기반으로 한다. 가톨릭학교 교육 과정은 그리스도교 인간론의 토대가 되는 가톨릭 신앙과 교육 철학을 근거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경험을 선정해야 한다.¹³⁾

2. 진리의 탐구와 신앙의 통합

가톨릭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리 탐구와 교육 활동은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져야 한다.”¹⁴⁾ 가톨릭학교 교육 과정은 복음 정신에 기초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 목표를 성취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담은 과목 고유의 지식, 가치, 탐구 방법, 태도를 학생들에게 길러 줄 수 있다.¹⁵⁾

3. 삶과 신앙의 통합¹⁶⁾

가톨릭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신앙의 통합은 “학생들이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하느님과 초월성에 대한 의식
-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¹⁷⁾
- 타인을 향한 연대와 봉사의 정신¹⁸⁾
- 정의와 평화의 추구¹⁹⁾
- 상호 문화 존중²⁰⁾
- 생태 영성과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 고취²¹⁾
- 형제적 인류애²²⁾

4. 가톨릭 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교과 교육

교과 수업은 각 교과와 지식 구조와 탐구 양식을 존중하여 충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과 수업은 복음의 빛에 비추어진 가톨릭의 가치와 전통을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업 과정에서 활용하는 자료와 예화, 그리고 체험 과제 활동이 미치는 잠재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

12) 참조: 지침서 1.2.2-2);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8.55항.

13) 지침서 3.2.1 참조.

14)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37항 참조.

15)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38-43항 참조.

16) 참조: 지침서 3.2.1-4);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37.44-48.58항.

17) 참조: 지침서 4.1.1;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16.17항.

18) 참조: 지침서 4.3;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17항;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형제적 인류애 교육」 (*Educating to Fraternal Humanism*), (『가톨릭 교회 가르침』 제57호, 2018, 157-160쪽), 2017, 7.10.11항.

19) 참조: 지침서 4.2;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29.49항; 「형제적 인류애 교육」, 5항;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학교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과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50호, 2014, 88-94쪽), 2013, 33.37항.

20) 참조: 지침서 4.4; 「가톨릭학교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과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69항.

21) 지침서 4.5 참조.

22) 「형제적 인류애 교육」, 14.17.20항 참조.

에서 학생 개개인의 신념이나 생각을 구속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²³⁾

1) 국어 교과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각 영역에 걸쳐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각 영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 가치를 충분히 기쁨으로써 자아와 타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화의 이해·향유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 활동의 신장은 가톨릭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진리 탐구와 신앙, 삶과 신앙의 통합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과 학습 과정에 있어서도 가톨릭 교회의 복음적 가치와 정신을 담은 다양한 제재와 주제, 학습 형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언어가 공동체 내 구성원 간 깊은 이해를 돕고 가톨릭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형성하는 주요한 도구임을 경험할 수 있다.²⁴⁾

2) 수학 교과는 사회와 자연 현상의 관찰, 분석, 조직, 표현을 통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철한 이성과 엄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수학 교과는 실질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신앙과 무관하리라는 통념을 낳는다. 그러나 수학이 다루는 수나 기호가 지닌 의미나 상징은 종교적 연원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치밀한 논리력과 사고력은 인간의 한계와 그것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차원의 세계를 유추하게 한다. 수학의 역사 또한, 가톨릭의 역사와 연관된 것이 많으므로 다양한 사례들을 활용하여 잠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²⁵⁾

3) 사회 교과는 인간과 사회, 세계 질서의 원리와 현실을 이해하도록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사회 교과 교육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고 시민 의식을 익혀 가는 과정에서 가톨릭의 가르침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갈등 없이 조화됨을 깨달을 수 있다. 사회 교과에서 추구하는 자기 존중과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려는 이상은 사회 교육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서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 보장의 역사, 사회 윤리와 범죄, 부와 가난, 평등과 차별, 협력과 갈등, 전쟁과 평화 등의 주제를 다루는 수업 과정 안에서도 학생들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²⁶⁾

4) 역사 교과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안목과 교훈을 과거 경험과 전통에서 얻을 수 있게 안내한다. 역사 교육은 과거 기록과 흔적을 읽고 당시 삶을 재구성하며 그 삶의 지혜와 경험을 오늘에 되살리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역사 교육은 역사적 환경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정치·사회·경제·심리 요인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 교육 안에서 가톨릭 교회는 유용한 교육적 소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세계사와 개별 국가(민족)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가톨릭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²⁷⁾

5) 과학 교과는 자연 현상에 대하여 이루어진 탐구 결과들을 섭렵할 수 있게 하고, 학생 스스로 한 사람의 자연 탐구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안목과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는다. 과학 교과는 종종 종교적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인류가 이룬 과학적 성취에 경탄하면서 인간과 신의 관계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과학의 객관적 사실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자연 현상에서 신의 섭리를 포착하는 시각은 공상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가톨릭학교의 과학 교과 수업에서 신중하고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가톨릭 교리와 전통 안에서 그런 경향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학생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3) 지침서 3.2.3-3)-(1) 참조.

24) 지침서 3.2.3-3)-(2) 참조.

25) 지침서 3.2.3-3)-(3) 참조.

26) 지침서 3.2.3-3)-(4) 참조.

27) 지침서 3.2.3-3)-(5) 참조.

과학 탐구가 자연만의 원리를 밝히는 일이기보다 하느님의 섭리를 헤아리게 되는 일임을 학생들이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이 하느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낳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과학 교과 안에서 이런 과제는 생명 존중이나 생태 보전 등 가톨릭 윤리와 가치를 구현해 내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²⁸⁾

6)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과는 언어(외국어) 역량을 향상시켜 지적인 사고의 습관을 길러 준다. 새로운 어휘의 습득은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기억력을 발달시켜 줄 뿐 아니라 국제적 안목과 다문화적 개방성을 통하여 생각과 생활의 영역을 넓혀 줄 수 있다. 같은 언어 교과로서 국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교과에서도 읽기, 쓰기, 말하기의 소재와 주제에 가톨릭적 요소들을 더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선교를 통하여 세계의 각 지역이나 국가별로 토착화된 가톨릭 교회나 전통의 모습 등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가톨릭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²⁹⁾

7) 예술 교과는 진정한 인간 교육에서 필수적이다. 예술 교과에서 학생들은 예술 작품에 집약된 지혜와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훌륭한 작품으로 표현되기까지의 성실성과 인내를 만나게 된다. 예술 교과에서는 다양한 예술적 형태에 담긴 미적인 표현들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고, 학생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름다움을 판별할 수 있는 심미 역량을 가지는 것, 예술적 가치를 감상하는 것은 학생들을 진정한 기쁨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고, 마음의 휴식을 누리게 되고, 영혼을 들어 올림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더불어 감정,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 머릿속에 떠오른 영상을 완성시키는 인내력, 마침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수용하는 겸허함 등 귀중한 자질을 기르게 된다.³⁰⁾ 오랜 역사의 기반이 되어온 가톨릭 신앙과 전통은 예술 교과의 문화유산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므로 다양한 예술적 특징과 가치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며 예술적 감성을 기르고 또한, 타인의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예술과 인생을 아우르는 가톨릭적 소양을 함양한다.

8) 체육 교과는 “아름답고 강한 영혼을 담아 두기 위한 튼튼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교과”³¹⁾로서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이다. 신체의 단련을 돕는 체육 교과를 배제하고 지성, 덕성, 신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전인 교육을 도모할 수는 없다. 많은 스포츠 활동들이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기초로 하고, 순발력과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육 교과 안에서 학생들은 신체의 단련과 함께 사회성과 협동, 문제 해결 역량 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을 총괄하는 체육 교과를 통한 체육 활동은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보편적이고 다양한 인문적, 자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신체 활동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체·지·덕이 통합된 가톨릭적 전인 양성은 긍정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함께 만들어 나아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5. 전인적 인간을 구현하는 비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이란 정규 교과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내의 모든 교육 활동이다. 비교과 활동은 교과의 경계를 허무는 범교과적 활동을 통하여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 형태이므로 가톨릭 학교에서는 가톨릭 교육의 고유한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가톨릭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하느님과 초월성에 대한 의식,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타인을 향한 연대와 봉사의 정신, 정의와 평화의 추구, 상호 문화 존중, 생태 영성과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 고취, 형제적 인류애 등은 비교과 활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과 활동에서는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과

28) 지침서 3.2.3-3)-(6) 참조.

29) 지침서 3.2.3-3)-(7) 참조.

30) 성심 수녀회, ‘교육 정신과 학습 계획’(Plan of Study), 다양한 학과를 통한 인격 형성 ‘예술 교육’ 참조.

31) 성심 수녀회, ‘교육 정신과 학습 계획’, 다양한 학과를 통한 인격 형성 ‘체육’ 참조.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수준별 학습을 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³²⁾

6.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종교 교육

1) 종교 교육의 목적과 중요성: 가톨릭학교 종교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데 있다. 종교 교육은 가톨릭학교가 그 사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교육 과정이다. 가톨릭학교는 복음화의 기본적 사명을 수행하고 학생들의 윤리적, 종교적, 영성적 성장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합당하고 효과적인 종교 교육을 추구한다.³³⁾

2) 내용과 운영: 종교 교육에서는 성경과 성전(聖傳)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전례, 가톨릭 사회 교리³⁴⁾를 바탕으로 타인의 인격과 문화 존중, 생명 존중, 생태 환경 보존, 평화와 정의 추구, 양심적 책임감 형성, 진정한 진리 추구, 평화로운 비판 정신 형성,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 형성 등을 다룬다. 종교 교육은 전례력의 흐름을 따라 가톨릭적인 삶을 체험하고 묵상하도록 안내하며, 학사력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례력과 조화되는 다양한 과정이나 활동으로 종교 교육의 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종교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과 전례와 특별 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이든 그 교육을 위한 계획과 실행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톨릭학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³⁵⁾

3) 종교 교육 과정 운영의 유의 사항

종교 교육은 학교의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종교 교과 시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과 교육 환경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³⁶⁾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학생들도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교조적인 강제와 주입을 지양하고, 다른 종교나 신앙에 대한 이해와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톨릭학교는 교육 과정 내에 가톨릭 종교 교육을 명시적으로 편성하고 수업 시수를 확보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³⁷⁾

7. 특수 학교, 각종 학교와 대안 학교의 교육 과정

1) 특수 학교

가톨릭 특수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하느님 모습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이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 학생들의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강점과 능력에 중점을 둔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각자의 소질과 잠재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각종 학교와 대안 학교의 교육 과정

32) 지침서 3.2.5 참조.

33) 지침서 3.2.4-2) 참조.

34) 사회 교리란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일컫는다. 가톨릭 교회는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관점에서 그 답을 찾고 제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 교리에는 인간 존중,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네 가지 주요한 원리가 있다. YOUCAT 재단, 가톨릭 사회 교리서 『DOCAT』, 한국어판, 가톨릭 출판사, 2016 참조.

35) 지침서 3.2.4-1), 3.2.4-2), 3.2.4-4) 참조.

36)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50항 참조.

37) 참조: 지침서 3.2.4-3);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50항;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42항.

가톨릭의 각종 학교, 대안 학교는 학생들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하느님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인간의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의 개발로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 공동체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 공동체가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는 복음 정신에 따른 공동선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 모두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여 소외됨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8. 수월성 교육

가톨릭학교는 수월성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³⁸⁾ 가톨릭학교가 추구하는 수월성 교육이란 지성과 인성을 통합하는 가톨릭의 교육 철학 안에서 학생 각자가 지닌 재능과 소질을 존중하는 가운데 학문 분야 또는 특정 재능 분야에서 각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가톨릭학교는 이를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9. 시대의 표징을 읽는 가톨릭학교 교육 과정

가톨릭학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등 모든 사회적 체제들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학교는 사회 교리를 바탕으로 세상의 새로운 발견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신앙의 빛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요한 교육적 논의와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로써 가톨릭학교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인류 발전에 공헌하며 다른 교육 기관의 모범이 된다. 이를 위하여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생명 존중, 정의와 평화, 봉사, 문화 간 대화, 기후 문제를 비롯한 생태 환경 등의 주제에 대하여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10. 교육 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와 교사의 책임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가톨릭 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개별 학교와 교사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개별 학교와 교사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 활동을 격려하고,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속적인 교사 교육은 평생 학습자인 교사들의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11. 가톨릭학교 교육 과정과 국가 교육 과정의 관계

가톨릭학교 교육 과정은 가톨릭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 수준 교육 과정과 교육 과정 운영의 원칙을 적용하고 존중한다.³⁹⁾

현장 제5장 교육 방법

가톨릭학교는 친교의 교육을 바탕으로 인격적 만남, 비판적 성찰, 대화, 협력과 개별 학습, 기억과 상상력 활용, 그리고 교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

1. 교육 방법의 기초가 되는 친교의 교육

가톨릭학교는 친교의 교육⁴⁰⁾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습 과정의 능동적 주체로 참여하는 가운데 학습 목표의

38) 『교회 법전』, 806조 2항 참조.

39) 지침서 3.2.2, 3.3.1-4) 참조.

40) 참조: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봉헌 생활자와 평신도의 공동 사명인 가톨릭학교 교육」, 2007, 12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8호, 2008, 200쪽);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가톨릭학교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과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2013, 34-38, 46-47항.

달성과 교과와 본질을 구현하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 “친교의 실재”⁴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관계를 원형으로 하는 친교의 교육은 학습자를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인격적 존재로 신뢰하고,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차원을 통합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 관계 안에서 구현된다. 친교의 교육을 적용하는 주요 방법에는 인격적 만남, 비판적 성찰, 대화, 협력과 개별 학습, 기억과 상상력 활용 방식이 있다.

1) 인격적 만남

가톨릭학교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적 가치들이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학생들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인격적 만남이란 상호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둔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개별성, 잠재력을 신뢰하면서 교육 방법을 선택할 때 교과목의 특성,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학습자의 심성과 성격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한 교육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⁴²⁾

2) 비판적 성찰

가톨릭학교는 학생들이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학생들은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비판적 성찰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 기울이기, 이해하기, 판단하기, 결정하기의 의도적 활동은 교과와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⁴³⁾

3) 대화

가톨릭학교는 수업에서 학생의 참여와 학습 동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화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화는 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애덕의 표현”⁴⁴⁾으로써 대화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정과 상호 신뢰, 존중의 분위기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명료함, 온유함, 신뢰와 신중함은 대화의 근본적인 특성이며, 경청은 대화를 지속하는 바탕이고, 상호 존중은 대화의 결과이다.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표현하고, 다른 관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학습 내용의 내면화, 개방적 태도,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배우게 된다.⁴⁵⁾

4) 협력과 개별 학습

가톨릭학교는 협력 학습의 가치와 함께 개별 학습의 가치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 차원에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이며, 동시에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협력 학습에서는 학습에 대한 책임감, 타인의 의견 경청, 다양한 관점에 대한 개방적 태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호 의존적 참여가 요청된다.⁴⁶⁾ 개별 학습은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며, 효과적인 협력 학습의 전제 조건이다. 개별 학습에서는 학생 스스로 관심 주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⁴⁷⁾

5) 기억과 상상력 활용

41) 「가톨릭학교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37항 참조.

42) 지침서 3.3.1-1, 3.3.1-5 참조; 「가톨릭학교 내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21항.

43) 토마스 그룸,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2015, 149.227.398쪽 참조.

44) 참조: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교리 교육 총지침」, 2009, 「교리 교사 영성」, 138쪽, (「교리 교육의 쇄신」, 180항 참조); 「가톨릭학교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42.47항.

45) 참조: 「교리 교육 총지침」, 「교리 교사 영성」, 138쪽, (「교리 교육의 쇄신」, 180항 참조); 「가톨릭학교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59.69.83항.

46) 「교리 교육 총지침」, 159항 참조.

47) 지침서 3.3.1-8) 참조.

가톨릭학교는 기억과 상상력이 가지는 교육의 가치를 존중한다. 기억의 활용⁴⁸⁾은 오래된 교육 방법으로 암기와 경험을 되돌아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업에서 암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주입식 수업에 의한 기계적 암기가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반응과 숙고, 대화와 침묵의 시간, 말하기와 쓰기 같은 여러 가지 학습 기능”들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 수업에서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은 역사와 전통, 학습자 개인적 경험, 이전의 학습 내용과 관련한 질문으로 시작되며, 현재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⁴⁹⁾ 이는 주제에 대한 주의 집중, 관련성 발견,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이끄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상상력 활용은 주제와 관련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예상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숙고하도록 자극하는 활동이다. 수업에서 상상력 활용은 사고의 확장을 돕는 주제와 관련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 상상력 활용은 수업에서 어떠한 응답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학생들이 신뢰할 때 효과가 있으며, 상상력의 표현은 글, 그림, 몸짓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⁵⁰⁾

2. 교과 특성을 적용한 교육 방법

가톨릭학교 교육 과정은 복음적 가치와 가톨릭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과목 고유의 지식 체계와 탐구 양식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교육 방법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 능력 수준, 교과의 내용과 활동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교재나 학습 자료, 학습 방식도 다양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⁵¹⁾

3.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돕는 평가

가톨릭학교에서 평가는 학생의 학습 정도를 점검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고, 학습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다. 평가는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능력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가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학습의 과정이자 경험이 되도록 지필 시험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는 교사가 자신의 교육 방식을 점검하고, 학생 개인의 필요와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⁵²⁾

4.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가톨릭학교 교육 과정은 교육 방법 선정에 있어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교육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교육 매체와 기자재에 대한 지식과 활용법 습득⁵³⁾, 그리고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현장 제6장 가톨릭학교 교육자

가톨릭학교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교육자를 통하여 그 사명을 구현한다.⁵⁴⁾

1. 교육자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톨릭학교 교육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48) 「교리 교육 총지침」, 154항 참조.

49) 「교리 교육 총지침」, 154항 참조.

50) 토마스 그룸,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2015, 461쪽.

51) 지침서 3.3.1, 3.3.1-3) 참조.

52) 지침서 3.3.3 참조.

53) 「교리 교육 총지침」, 161항 참조.

54) 지침서 3.4 참조.

복음에 의거하여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를 영위하고, ‘참된 행복’을 인생 규범으로 삼게 한다.⁵⁵⁾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개개인의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 학교는 가톨릭학교의 정체성을 구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톨릭학교 교육자가 교회와 학교 간의 본질적 관계를 숙고하는 일은 중요하다.”⁵⁶⁾

2. 임무와 자세

1) 가톨릭학교 교육자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화와 전인 교육에 공헌해야 한다. 따라서 가톨릭학교 교육자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톨릭학교 교육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가톨릭학교 교육자는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톨릭학교 교육의 사명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료 교육자와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전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톨릭 신앙과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톨릭학교 사명을 수행하는 데 관련되는 제반 활동(예: 학교 행사, 전례 활동, 신앙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 기타 교회와의 협력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⁵⁷⁾

2) 가톨릭학교의 경영과 행정을 책임진 이들은 학교의 정체성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톨릭 신앙을 명백히 고백하며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들은 학교의 가톨릭 특성을 유지하도록 가톨릭 신앙을 가진 교사와 직원, 학생들이 다수가 되도록 노력한다.

3. 교육 전문성

가톨릭학교 교육자는 자신이 가르칠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 탐구를 통하여 교사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⁵⁸⁾

4. 교회 지도자와 관계

가톨릭학교 교육자는 가톨릭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고를 수용한다. 이를 통하여 가톨릭학교 교육자들은 학교 경영자와 교회의 지도자와 협력하고 개방과 수용,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가톨릭학교의 사명 실현을 위하여 일치된 학교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⁵⁹⁾

5. 학부모와 관계

가톨릭학교 교육자는 상호 신뢰와 존중, 협력의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교육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⁶⁰⁾

6. 교회의 사목적 배려와 지원

가톨릭학교 교육자를 위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와 지원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톨릭학교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에 기꺼이 동참하고 이로부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55)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34항 참조.

56) 참조: 지침서 3.4.1;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20.34.78항;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19항.

57) 참조: 지침서 3.4.2-1);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71항.

58) 지침서 3.4.1-3) 참조.

59) 지침서 3.4.2-2) 참조.

60) 지침서 3.4.2-8) 참조.

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⁶¹⁾

7. 가톨릭학교 교육자를 위한 영성적 지원

가톨릭학교 사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앙 깊은 가톨릭학교 교육자의 확보와 영성적 지원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구뿐 아니라 학교 법인, 학교는 교육자들의 신앙, 가톨릭 교육 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적 동기, 전문적 자질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자 교육자를 위해서는 전례, 기도, 성경 공부, 피정, 종교 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신앙이 교육 활동에 스며들어 생명력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비신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영성 교육과 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가톨릭학교 교육을 깊이 이해하고 가톨릭학교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사명 의식을 지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가톨릭학교 교육자는 학교장과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과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⁶²⁾

현장 제7장 학교 선택권

가톨릭학교는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톨릭학교 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 선택권의 보장과 확대를 옹호한다.

1. 교회의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가톨릭 교회는 교육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복음의 은총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일찍이 인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교육사를 선도하고 근대 교육의 모범을 보여 왔다. 한국 가톨릭 교회도 교육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관심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⁶³⁾

2. 교회 지도자들의 가톨릭학교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가톨릭 교회는 “모든 교육 수단 가운데에서 학교가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종류, 모든 등급의 학교를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권리를 가진다.”⁶⁴⁾ 그러므로 한국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인류의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고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톨릭학교를 통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가톨릭학교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 여건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⁶⁵⁾

3.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가톨릭학교

가톨릭 교회가 모든 이를 환영하듯이, 가톨릭학교도 교육 기회 제공에 배타적이지 않다. 가톨릭학교 교육은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두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앙에 관계 없이 가톨릭학교를 선택하는 모든 학생에게 입학의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하고⁶⁶⁾학교 교육에 있어서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4. 가톨릭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의 동의

가톨릭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문을 개방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학교 교육의 특성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톨릭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그 입학의 결정이 가톨릭학교 교육 이념에 근거한 교육에 동의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 가톨릭학교에 대한

61) 참조: 지침서 5.1;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78.79항

62) 지침서 3.4.1-1), 3.4.2-6) 참조.

63) 지침서 2.1.1 참조;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1항;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8항 참조.

64) 참조: 지침서 2.1.2;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8항.

65) 참조: 지침서 2.1.2, 5.1, 5.1.1;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5.9항.

66) 지침서 2.3.1 참조.

자발적 선택이 어렵지만 가톨릭 교회와 학교는 이런 제도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가톨릭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가톨릭학교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⁶⁷⁾

5. 가톨릭학교 교육에 대한 동의 확인 절차

가톨릭학교는 입학 과정에서 가톨릭학교 교육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서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절차는 가톨릭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키우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과정이다.⁶⁸⁾

6. 가톨릭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가톨릭 교회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부모가 학교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이에 따라 한국 가톨릭 교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가톨릭학교를 선택하여 전·입학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 환경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한국 가톨릭 교회는 정책 당국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존중함으로써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권고한다.⁶⁹⁾

현장 제8장 교회와의 관계

가톨릭학교는 교회의 교육 기관으로서 교회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 안에서 운영한다.

1. 교구장의 권한

교구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가톨릭학교들이 지역 교회와 연대하여 가톨릭학교 교육 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조정하며 관리·감독할 권리가 있다. 단, 수도회가 운영하는 가톨릭학교의 내부 운영에 관한 자치권은 보존된다.⁷⁰⁾

2. 수도회와의 관계

수도회가 운영하는 가톨릭학교는 고유한 카리스마⁷¹⁾를 실현하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교회 사명으로서의 가톨릭학교 교육에 동참하며 교구장의 교육적 사목에 협조한다.⁷²⁾

3. 상호 협력의 필요

가톨릭학교는 교육을 통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화와 전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구, 본당, 교회 기관뿐 아니라 타 가톨릭학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⁷³⁾

현장 제9장 연대·협력

가톨릭학교는 가정, 지역 사회, 국가와 연대·협력한다.

67) 지침서 2.3.2 참조.

68) 지침서 2.3.3 참조.

69) 지침서 2.4.1 참조.

70) 지침서 3.1.3-1, 3.1.3-2) 참조; 『교회 법전』, 806조 1항,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71항 참조.

71) 참조: 지침서 3.1.3); 『교회 법전』, 806조 1항.

72) 지침서 3.1.3-3), 5.2 참조.

73) 참조: 지침서 3.1.2-3);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44-48항;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9항.

1.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

가톨릭학교는 교육 이념의 구현과 교육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차원의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에 가정, 지역 사회, 국가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⁷⁴⁾

2. 가정과 연대·협력

가톨릭학교는 가정이 사랑과 형제애, 공동생활과 나눔,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전달하는 교육의 첫째 자리임을 인식한다. 이에 가톨릭학교는 교육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보조성을 원칙으로 가정과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⁷⁵⁾

3. 지역 사회와 연대·협력

가톨릭학교는 교육이 지역 사회를 지속하고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인식한다. 이에 가톨릭학교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공동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⁷⁶⁾

4. 국가와 연대·협력

가톨릭학교는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사고와 공동선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통하여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전인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게 됨을 인식한다. 이에 가톨릭학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방향과 목표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⁷⁷⁾

현장 제10장 우선적 관심

가톨릭학교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육에 우선적 관심을 가진다.

1. 우선적 관심

가톨릭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가톨릭 학교도 불우한 가정 환경, 육체적 심리적 장애, 국제적 이주에 따른 차별 등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보살필 책임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가톨릭학교는 우선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들이 가톨릭학교 교육의 기회를 얻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⁷⁸⁾

2. 소외 청소년 지원

가톨릭학교는 한국 사회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소외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의 자살과 자해, 우울증, 중독 등의 정신 건강과 흡연과 음주, 약물 남용 문제, 폭력과 유해 매체에 일상적 노출 등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삶을 황폐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성(性)의 문제, 가정 내 폭력, 학교 폭력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가톨릭학교는 이러한 청소년 소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나 학교 내의 자원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 지원, 관련 법령과 외부 기관과의 연계, 구체적인 지원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습 소외 극복 지원

가톨릭학교는 학생 각자가 지닌 고유한 재능과 잠재적 역량이 충실히 개발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지만

74) 지침서 5장 참조.

75) 지침서 5.3 참조.

76) 지침서 5.5 참조.

77) 지침서 5.6 참조.

78) 지침서 2.2.1, 2.2.3 참조.

동시에 학업에서 반복되는 좌절 때문에 무력감에 빠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학생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돌봄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무력감에 빠진 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회복되고, 자아 효능감이 길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능력과 학업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과 다양한 학습 지원 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학습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언

한국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가톨릭 교육의 고유한 교육 이념과 사명을 충실히 실행하도록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헌장」을 공포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지침서」를 펴내는 바이다. 본 지침서는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헌이며, 헌장의 정신을 학교 교육 활동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침이다. 또 가톨릭학교의 이념과 자율성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사회와 제도의 이해와 협력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이다.

본 지침서는 가톨릭학교 교육의 정신을 다양한 관점과 환경에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가톨릭학교의 창의적인 다양한 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앞으로 본 지침서는 가톨릭 교육 이념을 고양하고 실천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통하여 더욱 풍성해지고 정련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지침서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발전 중인 것이다.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헌장」에 바탕을 둔 본 지침서가 학교 교육에 관련된 정부의 현행 법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지침서가 법제적 현실보다 가톨릭 교육의 정신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이유는 가톨릭학교들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리성을 존중하고 일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복음화를 통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곧 본 지침서는 가톨릭학교 교육이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범사회적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적 보편성과 타당성을 추구함을 반영하고 있다.

교회는 가톨릭학교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지침서」에 비추어 자신의 교육관과 교육 행위를 성찰하고 가톨릭 정신에 부합하는 교육 실천에 매진하여 가톨릭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과 실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